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356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5. 26(금) 13:50 ~ 16:56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제35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오후 5시부터 예술가의집 재개관식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회의의 속도를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2건의 의결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내 진행이 어려우면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내에 다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3년 아코문화창작기금 발표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보고사항 중 국회지정사업 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 1건은 지난 4월 전체회의를 통해서 개선 계획 수립 후 재보고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보고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지정사업 담당부서와 주관단체의 보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올바르게 집행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국회지정사업의 주관단체가 오후 2시 30분경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님이 오셨나요? 좀 늦으시는데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할 것이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강신애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12인의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355차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 7건이 상정되었고 그중에서 6건이 원안의결 그리고 1건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06호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에 있는 관계로 비대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하세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1006호 2023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의 상세한 안건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가들의 우수한 미발표 작품을 선정해서 발표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인당 200만원의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6억이고요. 300명의 작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청 접수를 3월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접수 결과 1,26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결격이 좀 많은데 138건이고 심의대상은 1,129건입니다. 이것을 5개 분과로 17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 비율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서 심의 기준은 미발표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100%로 해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 방법은 무기명 미발표원고 심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전전수검토제 그리고 채점제를 통해서 심의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의 추진일정은 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표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4월에 행정검토를 진행한 후 사전전수검토를 2주간 진행했고 심의회의는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의 심의 제척 및 회피 현황에서 제척은 없고 회피가 2건 있었습니다. 이게 무기명 미발표 작품의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회피가 2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를 알법하다 내지는 어디에선가 다른 문학상 심사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심의 위원께서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00건의 심의결정 내용은 10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장르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예비순위를 결정했는데요.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선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 선정 대상자들이 순위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선정 현황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요.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5월 31일에 발표를 하고 6월 말 이후부터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의 결정내역이나 심의총평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여기 결격사유에 2023년도 발표지원과 발간지원에 동일 작품을 포함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 중에 보면 발간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지원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의 비교적 소액의 지원을 하면서 미발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저희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장 웹진 플랫폼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브런치와 협력해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발간지원사업은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가 1,000만 원 규모고요. 그리고 발간지원 사업은 1차 심의가 끝났고 2차 심의를 진행 중이라서 2차 심의까지 마친 후에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을 동일 연도에 진행하는데 여기에 같은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에 중복신청으로 보고 중복신청을 제한한다고 고지했었고요. 이 경우 결격에 해당된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정숙 위원** : 지금 지원신청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지원신청이 1,267건인데 그중에 결격이 138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격률이 10%가 좀 넘는데요. 지금 보니까 평론 쪽에서도 결격이 1건 있었어요. 제가 평론을 특별히 높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론하시는 분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시고 어떤 형식들을 굉장히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1건이 결격 되었다는 말이죠. 전반적으로 결격 비율 10%가 평균인 것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결격사유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타의 사업에 비하면 결격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8% 정도가 되고요. 28페이지를 보시면 결격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저희가 고지한 내용에서 결격에 해당하고 이미 고지한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인데요. 아마 대체로 창작기금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마감 기한에 임박하여 급히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결격 비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미연에 결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서는 결격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본적으로 결격사유를 보면 이미 제출한 작품이나 발표작이고 중복신청이고 무기명 위반인데요. 이런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고지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아니요. 사전고지는 저희가 충분히 했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아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사전에 공고를 할 때 이것을 주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결격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저희가 차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별도의 설명회를 준비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안내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접수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있습니까?

김미라 위원 : 예, 저희가 공모 모집을 할 때 맨 앞에 간단하게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같이 제출하게 해서 스스로 한 번 스크리닝을 하면 전면적인 결격사유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단순한 실수나 오류로 인해서 결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여기에 선정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지원한다든지.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발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작가들은 제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지원사업은 대체로 작가들의 발표지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표지면이 부족한 작가들한테 조금 더 많은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취지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정된 작가가 올해도 선정되는 경우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발표 작품을 공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원고료로 지원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다음에 지역적인 배분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지역배분은 없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비수도권 선정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청비율과 선정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들에 비해서 발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 충분히 공을 들여서 쓰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비수도권 작가들의 선정비율이 40% 정도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의견인데요. 지금 비수도권이 40%라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위원회에서 계속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문화재단이나 지역에서 지원도 많은데 광역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과거 오래전에 저희 기금사업들이 지역으로 이관되었는데요. 문학분야의 사업은 개인창작지원 사업이기도 하여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아르코창작문학기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지원사업이라는 유형의 경우 다른 지역재단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방식을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고요. 많은 작가들이 중앙기관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선순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올해 2년 차가 된 사업이거든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다만 건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라서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지?

**정병국 위원장 :** 건수를 줄이고 액수를 높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수요자인 문학인들은 어느 방향을 원해요? 200만 원은 너무 미미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낮부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단위 액수를 올리고 건수를 줄이는 게 어떤지? 현장에서 의견들이 어때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일단 현장의 의견은 적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발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발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김진각 위원 :** 발표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면 공연을 올린다거나 하는데요. 문학은 온라인 발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문학 분야의 작가들은 보통 문예지를 통해서 발표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런데 문예지가 근래에는 종이책뿐만 아니라 웹진 등 전자매체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의 종이책과는 다르게 웹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통적인 문예잡지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브런치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태 위원** : 창의력이라는 게 분량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편소설이나 시, 동시 등 똑같이 200만 원씩 주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각 분야에서 작품의 수준에 따라서 상금을 달리할 수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정액지원으로 200만 원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분량의 작품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현장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걸친 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7편, 단편소설은 1편 등으로 장르마다 200만 원에 상응하는 분량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인 안건번호 제1007호 2023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 심의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본 사업의 심의결과는 지난 353차 위원회 보고 후에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한 기능제언 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354차에 해당 내용들을 수정하여 서면의결을 받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초공연예술 6개 분야에서 민간 소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은 A형 자체 기획 공연과 B형 자체기획 공연과 더불어 대관료를 할인하는 2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소공연장이고요. 지원규모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예산은 9억 3,800만 원이었고요. 지원규모는 A형이 최대 4,000만 원이고 B형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사유는 B형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대관료 할인에 대한 부분을 민간 공연장이 수행하는 개념으로 2,000만 원 정도 더 높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접수결과입니다.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아 총 1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5쪽의 자료를 보시면 A형이 87건 그리고 B형인 자체 기획 공연과 대관료 할인 유형 건수가 23건입니다. 각 세부 분야별 지원신청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표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별로 지원신청 접수결과를 표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A형은 수도권이 약 50%, 비수도권이 49.4% 신청을 하였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52.2%, 비수도권이 47.8%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그리고 본 사업의 특성상 공연장 안전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임직원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현직과 이력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일정입니다.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자택에서 전수검토 의견작성과 온라인 가채점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 5월 22일에 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의방침은 장르 통합심의를 실시하였고요. 본 사업 역시 지역균형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역균형지원제도의 최소 적용 비율은 28%로 최소 28%는 지역에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기준과 가중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총 22건이 선정되었고요. 본 사업의 총 예산인 9억 3,8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심의 결정 현황에서 A형에 행정결격 1건이 있습니다. 무용분야인데 이 사업 공고가 나갈 때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창작극장 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고지를 했는데 이 결격 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A형 사업은 총 86건이 지원심의 대상이었고 지원결정은 15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형으로 자체 기획 공연과 대관료 할인 유형의 심의대상 건수는 23건이고 결격은 1건도 없었고요. 지원결정은 7건이 결정되었습니다.

39쪽의 지역별 결정현황을 보시면 A형과 B형 모두 비수도권이 60% 그리고 42.9%로 상당히 높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신청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다음 주 초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수치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A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40%와 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비율인가요? 아니면 선정비율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결정비율입니다.

**이훈경 위원** : 선정된 비율인 것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이훈경 위원 : 그러면 맨 끝에 적혀 있는 비율하고 동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앞의 40%는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비율은 지원 결정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건수 40%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43건이고 비수도권이 43건으로 동일하게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40%와 60%로 적혀 있어서 1차적으로 궁금했구요.

장미진 위원 : 지금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렇죠? 표의 수치가 잘못된 것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원결정 건수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A형과 B형이 똑 같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이것은 저희가 엑셀로 작업을 하다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선정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건수에 비례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선정이 되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최소 28%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 지원신청 접수 현황을 보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심의위원님들께 안내 드리고 그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지역이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서울·경기권은 지원건수에 비해서 선정비율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여쭙봤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마치시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술균형발전 차원에서 A형과 B형 중에 전통예술이 신청건수가 1건이었는데 1건조차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장르 통합심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차후 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술적인 균형발전 부분에서 이렇게 연극, 뮤지컬과 음악만 집중적으로 선정이 되고 신청도 집중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아직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와 관련

된 전용 소극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은주 위원님께서 전통예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통예술 분야가 A형과 B형을 다 합치면 총 6건이 지원신청을 하였고 그 가운데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장르 대비 조금 더 비율은 높았고요.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도 장르 간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원신청서 내용 자체가 많이 미흡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종열 위원 :** 통합심의이기는 하지만 연극 같은 경우 많이 지원을 하였고 선정도 상대적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표에 각 장르별로 지원대비 선정비율을 적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2건에서 1건이 된 것은 좀 그렇지만요. 그래도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음악 같은 경우 심의대상은 22건이지만 2건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서류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원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극에 조금 더 적합하고 음악이나 다른 장르에는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조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총사업규모가 9억 3,800만 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15억 정도를 증액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까지는 1차 조정안이 적용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장르 간 구분해서 심의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각 장르 간 특성을 고려한 사업구조개편안 등을 만들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더 많은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실 대관료지원사업이 사라지면서 현장에서 가장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단체들과 많은 공연장들이 이 사업 안으로 들어와서 사라진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해 뭔가 보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지역균형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이던데요. A형을 보면 대구만 4건이거든요.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치우쳐진 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대구에 소극장이 밀집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나름 소극

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확장되어 있고 민간단체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소공연장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17개 지자체별로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게요. 여기 사업의 목적도 지역의 대표성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편협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서승미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이게 올해 한번 지원을 받으면 내년에 또 지원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이것은 당해 회계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승미 위원 :** 몇 년까지라는 건 없어요? 제한된 게 없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얼핏 보기에만 받은 데만 계속 받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오늘 아마 정준화 부장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할텐데 그 안에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때 이 사업도 같이 얘기가 될 겁니다.

**서승미 위원 :** 예.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각 위원 :**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의 효율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업운영의 효율성은,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공연예술단체가 보유한 300석 미만의 민간 소공연장 안에 우수한 기획프로그램과 대관료 할인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간접적인 지원까지 결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의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별로 분할 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의 배분, 그러니까 수요에 따른 예산의 부분, 지원신청이 많은 장르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연장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현장에 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결정이 된다.”라는 메시지보다는

본 사업의 목적에 조금 더 가깝고 우수한 공연장이어야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본 사업의 목적이 좀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심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의위원들께서도 본인 장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진짜 프로그램이 좋은 공연장들을 중심으로 선정해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르가 편중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역균형제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균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것. 이게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심의방침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침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을 할 때도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들이 선정되었거든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두 번째 공모를 할 때는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쿼터를 뒀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끼리 경쟁을 하고 지역을 진흥시키는 차원에서 지역은 지역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갖췄거든요. 그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의 예산도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산 쿼터를 나눠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 서울하고 지방의 여건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무처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정리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요. 이번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지금 국회지정사업을 하면 되나요?

송시경 사무처장 : 지금 대기 중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사무처장은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48쪽입니다. 10건이 보고안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구분을 하면 국회지정사업 2건을 바로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편성 현황과 지원사업구조 개선 추진현황 그리고 각 소위원회와 TF 회의결과 등을 포함해서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에서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위해 두 분이 와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되 공연예술부 홍승욱 부장이 먼저 설명을 하고 오신 각 사업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먼저 저희 부서에서 지난 회차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사업개선의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 PT 발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지정사업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한 사업내용 보고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수정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회의자료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지정사업이 저희 문예기금사업에 걱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나 기금의 집행 내용이 걱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환류 반영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검토를 통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51쪽을 보시면 위원회 의견에 대한 개선 여부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무국 조직 강화라든가 홍보와 추진방향의 구체화 그리고 20년간 축적된 성과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이며 이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갖고 로드맵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허영일 집행위원장님이 오셨고요. 보고자는 남종진 사무국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관계자 착석)

정병국 위원장 : 어서 오세요. 남종진 사무국 직원입니까?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설명을 해 주시죠.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남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023년도 대회와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집행위원장님도 같이 오셨잖아요? 허영일 집행위원장님.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계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설명하시죠.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먼저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콩쿠르는 지난 2004년도에 처음 설립되어 현재 19회 차까지 대회를 치렀습니다. 19회 차까지 대회를 치르는 동안 규모 면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무용 경연대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콩쿠르는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민족무용, 안무 등 4개 부문에 걸쳐 경연을 펼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닌 무용 경연대회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콩쿠르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경연 이외에도 무용수들에 대한 교육과 신·구 무용수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화합의 장으로서 삼위일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신진 무용수들을 발굴하여 미래의 무용 주역을 배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이 대회가 처음 설립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해외 콩쿠르에 비용 등의 문제로 참가하기 어려운 국내의 잠재력 있는 무용수들을 발탁하여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국내의 뛰어난 무용수들을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특전이 본 대회의 일부 수상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무용과 관련된 워크숍을 함께 곁들여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수상자 일부에게는 해외 유수의 무용 교육기관에서의 스칼라십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행사를 진행하는 시점에 국내 대학의 무용전공생들을 참여시켜서 무용 행사 등과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연 이외에 월드갈라 등 공연행사를 부대행사로 진행하면서 앞선 대회에서 수상했던 수상자들 그리고 중견 무용수들과 대회에 참가한 신진 무용수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발자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첫 대회에서는 발레와 현대무용 2개 부문에 걸쳐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5년 대회에서 민족무용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본 대회에 예술체육요원 특례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부대행사로 민족춤 페스티벌이 신설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안무 부문의 경연이 신설되면서 종합성 무용대회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심사 방식을 경연에 도입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콩쿠르가 지난 19년 동안 이룩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9번의 대회를 거치는 동안 대회에 참가한 인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19년 동안 누적된 참가국의 수는 240개국이 됩니다. 물론 중복된 참가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의 누적 숫자는 약 8,800명 가까운 인원입니다. 이처럼 대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과 더불어 19년 동안 본 대회를 통해서 국제무대나 국내무대에서 정상급 무용수로 활약하는 많은 전문 무용수를 배출해 냈습니다.

제1회 대회에 출전했었던 사라파노프 그리고 제5회 대회 때 김기민, 역시 마린스키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밖에 드레스덴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은은 본 대회의 2회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는 박예지는 10회 출신이고요. 아울러 국내 저명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도 많이 있습니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양대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석무용수들과 솔리스트 대다수가 본 콩쿠르를 통해서 전문 무용수로 성장한 무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무용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 무용수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무용수 외에도 안무가로 성장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학계에 진출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에서 특전을 받아서 해외 스킨라십의 수혜를 받은 인물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콩쿠르의 앞으로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콩쿠르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미래의 무용 주역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아시아의 대표 무용콩쿠르로 굳건하게 자리를 매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수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부대공연에 초청하여 신·구 무용인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년 동안의 저희 콩쿠르의 역정을 아카이브에 담아서 일반에 공개하는 그런 기획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데요. 현재와 같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부분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여하는 콩쿠르 후원회를 만들어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것이지만 환율변동 등과 연동해서 참가비를 좀 조정한다거나 아이디어 부스를 개발한다든가 기타 유료 관객 등을 확충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콩쿠르를 하면서 늘 느끼는 어려움은 이처럼 대회의 규모는 대단히 커졌지만 해외에서 오는 참가자들의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인원이 중국 등지를 제외하면 상당히 적다는 것을 하나의 한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극동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적 핸디캡 문제로 북미지역의 참가자들이 오기가 비용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인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 심사위원들이 그동안 많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어지간히 정리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예전과 같은 국제성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워크숍 등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복원해서 콩쿠르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릴 것입니다.

저희 콩쿠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서 국내 참가자들의 경연 비용을 많이 완화해 준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참여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연문화 정착에 애쓰고자 합니다.

올해 20회 대회의 일정입니다.

현재 예선경연이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은 보시는 것처럼 기자간담회 그리고 7월 4일에 개막식. 그리고 올해가 2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대행사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7월 5일에 민족춤 페스티벌 그리고 7월 6일에는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진단해 보는 기념학술심포지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파이널과 파이널 경연은 7월 7일부터 10일 간에 걸쳐서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의 콩쿠르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1차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당장 개선할 수는 없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국의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완벽한 직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인원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무용 전공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스태프로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대체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콩쿠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홍보는 잠재력이 있는 무용수들이 대회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하게 취하고 있는 방법은 국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경연대회를 알리고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일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현지에 직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경연과 부대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요. 기자간담회, 무용 관련 잡지에 광고, 그 밖에 온라인매체 홍보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관객 객석 점유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지난 대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객석 점유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경선의 경우는 1,300명 정도 그리고 행사의 경우에는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무료 인원은 객석 숫자에 비례해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대회를 치루고 난 다음에 스스로 저희가 생각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지적해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문제, 집행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행사다 보니 해외의 심사위원 혹은 예술인들, 참가자들이 당초 올 예정이었다가 오지 못해서 취소가 됐고요. 또 참가를 하더라도 항공료가 턱없이 비싸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런 예산집행의 안정성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회 때마다 경연에 참가하는 친구들이나 심사위원들께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가인원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요. 극장 등은 미리 대관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매칭시키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심사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연시

간을 좀 바꾼다거나..... 날짜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지가 된 것이라서요. 그래서 시간을 좀 바꾼다거나 심사위원 관리 인력 등을 확충해서 분담을 한다거나 경연장 내에 장소를 조금 더 확충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정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연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참가자들이 느끼는 불편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대개 이 부분이 가장 불만이 많은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불 참가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 가니까 극장 측과 협의해서 유희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불편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께서는 해외의 유명한 예술인들을 심사위원으로 많이 초빙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과의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많은 개런티를 요구하고 있고요. “내가 가는데 비행기는 좋은 자리를 줘야 하지 않겠어?”라는 요구 등이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Julio Bocca’라는 분을 심사위원장으로 초빙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 3명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축구로 유명한 마라도나고요. 두 번째 역시 축구로 유명한 리오넬 메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용수인 Julio Bocca라고 합니다. 대중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아주 탁월한 무용수로서의 능력이 전세계적으로 과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지금 국내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국내에서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남중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올해 경연에 참가한 인원은 84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참가자가 614명이고요. 해외 참가자가 226명인데요. 이 부분은 국적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국내 참가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라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해외 참가자로 분류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정부의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러한 사업답게 조직을 운영해 왔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20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조직다운 조직이 아니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콩쿠르인데 이게 콩쿠르인지 아니면 페스티벌인지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들만의 행사 그러니까 무용인들만을 위한 행사로 국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개선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홍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홍보라는 게 그런 홍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참가하게 하는 홍보가 아니고요.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무용행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전 홍보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받고 대회를 치르는데요. 참가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참가비는 그동안 한화로 20만 원씩을 받았습니니다. 처음에는 15만 원을 받다가요.

**김진각 위원 :** 우리나라 참가자 말입니까?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지금 현재는 20만 원을 받았습니니다.

**김진각 위원 :** 20만 원이요?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그런데 최근에 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환율 차이가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 미화 200달러를 기준으로 해외 참가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국내는 얼마나 받습니까?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국내도 20만 원이죠.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5만 원을 받았어요. 15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는 다른 콩쿠르와 좀 다르고 제가 콩쿠르를 만들 때부터 외국의 유명한 스타들이나 예술감독들이 와서 우리 무용수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들을 세계무대로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에서 떨어진 무용수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무용수들을 세계적인 스타들로부터 원포인트 레슨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심사위원들이 다 레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10년 하다 보니까 다른 콩쿠르도 참가비를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저희도 20만원으로 올린 대신 이 레슨은 무료로 받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800명이면 얼마입니까?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1억 6,000만 원이 되겠죠.

**김진각 위원 :**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렇다면 수익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익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그런데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말하자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세계에서 오는 사람에게 굉장히 잘해 드렸는데요. 스타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많아요.

**김진각 위원 :** 아니 그런데 콩쿠르인데요. 스타 레슨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콩쿠르인데 알려진 무용가들을 데리고 와서 떨어진 무용수들 레슨을 받게 하는 것은 방향성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저는 방향성이 다르다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생각했어요. 스타 무용수들이 왔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은 동작에 대한 분석의 틀이 있어요. 분석의 틀이 있는데 똑같은 동작이라도 아주 최고의, 말하자면 레슨을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김진각 위원 :** 제 말씀은 그것은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면 될 문제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국제무용콩쿠르인 국제행사잖아요? 그런 행사이고 유망한 무용수를 발탁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순수하게 경연대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제가 교육자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김진각 위원 :** 이건 국가사업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국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이 활용되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상한 구조로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향후에는 “경연을 중심으로 집중하자.” 다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유능한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니까 “이참에 무용을 하는 친구들이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대행사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서상으로는 ‘적합’ 하다 하고 보완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오늘 발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연혁을 말씀하셨을 때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행사 외에 이 행사의 발전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았고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도 약간 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회 행사만 연례적으로 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 콩쿠르 행사는 예술감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세미파이널이 있고 컨템포러리 무용 페스티벌도 있고 심포지엄, 월드갈라 등이 있으면 보통 예술감독이 전체 행사를 총괄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

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나 싶어요. 이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2004년부터 진행되면서 19번이 진행되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별다른 설명이 없이 지나가는 회차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PPT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해는 그냥 패스를 한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은 매년 두고 있습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그것은 제가 대답을 할게요. 저희는 예술감독을 초창기부터 분야를 다 나눴어요. 발레 예술감독, 민족극 예술감독. 우리나라의 초창기 무용의 선구자들이 다 맡아서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요.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장인주 위원 :** 저는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자료 12쪽과 13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총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80명이세요. 이 숫자가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무용계의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콩쿠르를 준비하시면서 집행위원회회의를 몇 회나 진행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집행 회의는 보통 4번에서 5번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는 원로선생님들과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니까 저는 “세대교체를 좀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기왕 시작하신 분이고 원로들이시니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계속 같이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내년부터는 “20주년이 끝났다.”라는 명분이 되니까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나요? 2023년을 준비하시면서는 참여를 못하신 거네요?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그러니까 참여를 간헐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건의를 해서 몇 번을 결석하면 제외하자는 얘기도 했지만 저 혼자서 결정을 못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술감독들과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예. 말씀대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올해 심사위원과 접치는 부분도 있고 동일인물의 성함이 다르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

분은 올해 콩쿠르를 개최하시기 전에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에 기재를 하시잖아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거의 사업의 80~90%를 일종의 보조금으로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예.

**정갑영 위원 :** 그렇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쓰면 위원회의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또 국고를 쓰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 왔다는 말이죠. 이것을 공식적인 사업의 통로가 아니라 국회지정사업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핵심적인 요인은 간단합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발표하실 때도 보니까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과 후년에도 계속해서 국회를 통한, 그러니까 사업의 80~90%의 예산을 기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하실 건가요?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을 해서 국고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모 사업으로 바뀌어서 제도적인 문제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콩쿠르를 2억 5,000만원을 갖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5억이었는데요.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정말 “세계 5대 콩쿠르로 만들겠다.” 개인적인 다짐을 했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은 꼭 살려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려줘서 국회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과정을 저한테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냐? 재정 자립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그래서 저희는 원래 국제콩쿠르로 시작했고 저는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호응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부대행사를 다 버리고 콩쿠르만 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10만 원부터 후원하는 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콩쿠르를 위한 후원회를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만들려고 그러신다는 게.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조금씩 받고 있어요.

정갑영 위원 : 저희가 궁금한 것은 연차적으로 자립도를 어떻게 해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하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반복될 것 아닙니까?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그것은 위원님이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허영일 집행위원장님,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도 이 사업은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올해 20주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0년 동안 국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 변칙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인데 미처 정부에서 챙기지 못했거나 빠트렸을 경우 국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당해연도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넣은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20년을 해 오신 겁니다. 허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대회이고 우리나라에서 꼭 챙겨야 할 사업이라면 국가사업으로 처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든지, 그렇지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쓰려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를 통해서 하잖아요?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왜 이 단체만 그런 공모 절차 없이 예산을 주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선한다.”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시키든지 방법을 찾아 본 예산에 편성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아시아 최고의 콩쿠르라고 얘기를 하지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예술을 보고 세계적으로 문화강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허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계 5대 콩쿠르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콩쿠르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콩쿠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히 훈련을 받고 여기에 나와서 경쟁을 하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안정화 되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보조를 하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명해서 간다고 해도 이 콩쿠르가 세계적인 콩쿠르가 될 수 없어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呢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저희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내보내셨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해서 또 내년에 하면 된다.” 는 이제 안됩니다. 저희는 안타까운 겁니다. 진정한 세계적인 콩쿠르가 되었으면 좋겠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국회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따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상태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실 거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

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예, 위원장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11회까지는 국고를 받았어요.

**정병국 위원장** : 이 대회가 10회까지 받고 정말 그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왜 안 해 주겠어요? 안 해 줄 수가 없게 했어야죠. 명성이 있다면요.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무용대회에서 유일하게 병역 혜택을 보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병역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몰리는 겁니다. 숫자는 800명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회냐?” 하는 부분에서는 “?”마크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바람은 어차피 그러한 기본적인 기반이 있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인 콩쿠르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된 대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연명해서 이 대회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깐요. “왜 여기만 계속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공모하지 않고, 공개적 경쟁을 하지 않고 내주느냐?” 라는 거죠. 9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 큰돈입니다. 지원하는 차원에서요. 보시잖아요. 다른 단체들은 지원받는 예산이 최대가 2억 5,0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받으실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 두 번이죠.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국고로 받으시려고 하면 그 대회를 한번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에는 다음에는 정부에서도 세계적인 대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것은 지원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허영일 위원장님도 고생을 안 하시고요. 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감사드리고요. 그냥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콩쿠르가 세계 3위가 되었어요.

**정병국 위원장** : 3위라는 것을 뭘 갖고 따집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3위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계가 다 인정을 해 주고, 만약 여기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무용계가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따로 메모했던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료관객들을 여쭙봤었는데 경영의 유료와 무료를 통합해서 2,30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연기간과 장소는 어디였는지와 극장객석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3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그것은 몇 차례, 몇 가지 공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연의 경우에도 부문이 4가지가 있어서 진행 일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누적하니깐 그런 인원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 1개의 행사마다 관객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행사 장소는 마포아트센터의 아트홀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에 소재한 예술극장입니다. 예술극장은 400명 정도 수용하고요. 마포아트홀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000석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예술가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민속무용 쪽으로 해외로 나간 예술가들이 없으세요. 2016년도에 민속무용 쪽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민속무용가 중에는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없는 건가요?

**남종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무국원** : 민족무용의 경우에는 한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춤이라서 어떤 국제표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무용을 추는 사람이 해외에 잠시 공연을 나갔다가 올 수는 있겠지만 해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발레나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국제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 무대에 올라도 똑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민족무용이라는 장르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훈경 위원** :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여쭙았던 게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족무용이 들어가 있는 게 페스티벌을 키우기 위한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일반 대회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표성에 보면 일반 관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일반 공연과는 다르다는 건 어떻게 연결 지어서 관객 유치나 홍보를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민족무용 콩쿠르가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 콩쿠르에서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현대무용, 발레, 민족무용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민족무용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셨고요. 또 민족무용 교류라는 게 어떤 뜻이나 하면, 중국은 조금 교류가 되어 민족무용 콩쿠르에서 입상한 무용수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석사, 박사를 할 수 있도록 스칼라십을 줘요. 그리고 컨템포러리 장르로 2억씩 3년을 해서 6억을 줬습니다. 그런 연수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우리 허영일 집행위원장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말을 드리기도 힘들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겨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갔다 와서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자기의 자존감을 걸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제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허영일 위원장님이 너무 딱해요. 매번 지금도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붙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붙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정병국 위원장** : 가만히 있어도 해 주세요?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혼자서 애를 쓰셔야 되느냐는 거죠.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처음 허영일 위원장님이 만드실 때 뜻이 있었잖아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위상이 돼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쫓아 다니고 여기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게. 지금 보니까 누더기가 된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하면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깐 참 답답한 거죠.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저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하나만 되는지 알았는데 다른 데도 콩쿠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요. 더 이상 국회지정사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시키세요. 안된다고 하면 무용계가 다 들고 일어나야 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제콩쿠르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그 정도는 됐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고생을 하셨으니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국회지정사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 :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어디죠?

**송시경 사무처장** : 다음은 오페라 허황후 건인데요. 먼저 홍승욱 부장이 설명을 드리고 똑같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국회지정사업 오페라 허황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국회지정사업을 통해서 4년째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가야사를 바탕으로 한 허황후를 창작 소재로 해서 창작오페라를 개발하였고요. 첫해에는 작품개발 둘째 연도에는 작품개발 이후에 작품 개선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온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

가 2억 5,000만 원인데 2억을 저희가 지원하고 시비로 김해시가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주관기관은 김해문화재단입니다. 지금 국회지정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리는 내용 가운데 저희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세부적인 기획에 대한 내용 까지 개선하라고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기금사업에 적합하냐?”,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기금 집행 자체가 투명하고 적정하냐?”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다음 연도에 환류하고 있는가?”라는 최소한의 요건 속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갖고 사무처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금 집행 적정성에서 이게 왜 적합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기금 집행의 적정성이라는 부분은 예산을 짤 때 창작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이 적정한 지.

**정병국 위원장 :** 아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적합해요? 적합한 게 아니죠.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공모하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거죠. 기록이라도 그렇게 남겨 놔야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는 국회지정사업들은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고 교부가 되었는데.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써놔야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검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단체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와서 형식적으로 거쳐 가니까 “내년에도 한마디 듣고 다녀가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개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할 얘기들은 다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해문화재단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손경년 대표와 신선섭 예술감독 그리고 김해시 문화예술과의 김찬우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는 김해문화재단의 서종호 공연기획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설명하고 답변하실 분이 어떤 분이시죠?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제가 발표를 드릴 것이고요. 질의응답은 예술감독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모든 분들이 질의응답에 응할 겁니까? 발표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서종호입니다. 제가 발표를 드릴 것이고요.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획행정적인 부분들과 예술적인 부분이 좀 나뉘져 있어서 질의응답은 저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신선섭 감독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대표님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대표님이 오셨나요? 대표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대표님이 앞으로 오셔서 대표님이 하셔야죠. 손경년 대표님?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서종호 공연기획팀장님?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서종호 공연기획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실 것은 대표님이 대표로 하시고 대표님이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발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그러면 김해문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국회지정사업 오페라 허황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자체인 김해시에서 지역문화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작품을 제작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르는 오페라로 지자체에서 결정이 되었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재원 마련 그리고 기타 진행되는 행정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담당하고 제작의 전반적인 주관 그리고 작품이 제작되었을 경우 운영하는 부분을 김해문화재단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가야사를 바탕으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고요. 그다음에 가야 문화의 출발이자 철기문화의 근원이라고 하는 김해에서 창작오페라를 제작해서 가야 문화권 도시 순회공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국체전 그리고 김해시가 2024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역대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공연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다음 해 연초로 이동됨에 따라서 2020년 사업예산을 갖고 제작이 완료되었고 공연은 2021년도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앞의 표에 보시다시피 총 5번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된 공연은 2021년 4월에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초연 작품을 올렸고요. 그 이후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그리고 서울오페라페스티벌의 초청작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13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 초청작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2020년부터 총 14억 9,100만 원이 투입되었었고요. 국비가 11억,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자부담의 경우에는 2022년도 5월에 진행되었던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 수익금을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다시 사례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공공문예회관 제작 오페라 중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 초청작으로 참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사무국에서 조사를 한 바탕으로 저희에게 전달해 준 부분들은, 설문조사 공연만족도에서 매우만족이 62%이며 보통 이상의 긍정 평가가 약 97%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0년 작품을 제작하고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오페라 전문가나 관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음악 편곡이나 작품의 내용들을 수정하면서 계속 보강하고 보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저희가 12월 29일부터 30일에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재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유로는 2021년 초연 이후 2차례 김해공연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의 재공연 요구가 지자체나 시의회, 재단을 통해서 계속 전달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품을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공연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외국작품 일색인 오페라 부분에서 창작오페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허황후의 고향인 인도와의 문화·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김해를 대표하는 예술콘텐츠를 통해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시나 전국체전의 문화체전화로 연계하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 결과 평가 및 관객의견이라고 드렸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사업 추진을 하고 나서 10월과 11월에 2차례 지자체와 재단기획팀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작품이 역사문화콘텐츠다보니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들, 줄거리의 문제점 등을 검토했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올해 2월 제작팀과 재단 기획팀 그리고 지자체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작품 개선회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했고요. 줄거리의 전체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들. 그리고 작품의 음악적인 부분들을 교체해서 작품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1차 수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6월경에 수정 대본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국비 2억과 시비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 11월에 작품 수정 보완 방향 설정을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6월에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참여인력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편곡 작업을 시행하고 작 분야별 계약을 진행한 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공연 연습 그리고 홍보를 진행하고요. 12월 공연 시행 후에 결과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언론이나 인쇄물 등은 저희 김해문화재단이 원래 공연장을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 그리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할 것이고요. 특히나 지자체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오늘 보고가 끝나고 사업이 확정되면 6월과 7월에 보도자료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 예산내역입니다.

참여인력에 대한 예산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재공연을 계속하기 때문에 1억 9,300만 원

을 포함해서 무대세트나 임차운영비 그리고 기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2억 5,000만 원으로 잡았고 총 2회 계획 중입니다.

중장기 추진 방향 및 수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목표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1차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계획으로 잡았던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 김해문화재단이 수행했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저희가 위탁을 받았고 2021년 4월, 9월, 10월에 공연을 진행하였고요. 2022년 오페라페스티벌 참가와 투어공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앵콜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계획에서 저희가 2023년 올해는 본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김해에서 공연을 진행하면서 홍보를 연계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전국체전과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성과와 한계 부분인데요. 저희가 “김해문화예술콘텐츠 최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오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본이나 작곡에 대한 부분들의 저작권을 다 등록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최초의 콘텐츠입니다. 그간 김해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반해서 저희 김해문화재단이 본 오페라를 진행하면서 재공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기초예술 장르를 지원하면서 기초예술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연을 진행하면서 지역예술인들과 중앙예술인들이 연계할 수 부분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계는 김해역사인물 소재의 오페라다보니 타 지역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그랜드오페라로 제작 요청이 있어서 회당 최소 1억 9,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재공연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품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보편성도 끌어 올리고 작품성도 높이는 부분도 병행하고, 작품의상이나 세트 등은 지역에서 제작되는 공연들과 연계해서 사용하고 작품이 갈라콘서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지금 올해 공연으로만 3년차 인데요. 관객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시고 예술의전당에서 하실 때는 거의 매진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다고 하시는데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시면서 왜 무료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에는 유료로 진행을 했고요. 본 공연으로 12월에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페라 장르의 금액 책정을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관람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문화나눔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무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시민들이 재공연을 요구하고 계시다면서요?

서중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예, 그렇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전부 세금인데 김해시민들만 무료로 공연을 보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연을 무료로 보신 분들이 그다음 공연을 유료로 보시는 건 어렵거든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중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김해문화재단에서 김해문화의전당과 김해서부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연 중에서도 시민문화향유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유료로 진행하는 공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의 공연기획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오페라 허황후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여 무료로 검토해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조금 더 보충을 해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보충해 주세요.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지역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페라는 이것을 시작할 때 창제작과 아까 문화체전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전 때 오페라를 시민들, 체전에 참여하는 각 도시의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짜기도 했고요. 오페라의 저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접하고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과 오페라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을 넘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 사업에서 우선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했을 때 유료로 했던 이유는 서울에서의 오페라 관객 수는 김해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료관객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김해시민들에게도 오페라의 관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공연을 해 보지만 오페라 관객의 관람객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래도 허황후의 경우에는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도 있고 오페라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페라도 유료관객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갑영 위원 :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지원요청을 하실 건가요?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세요.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저희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김해에서는 문화체전의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첫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앞에 설명할 때 저희가 출구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연을 제작하고 운영 유지하는데 1억 9,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김해문화재단에서 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10억 정도로 잡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 중에서 오페라를 전체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해시와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오페라 전체를 공연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페라 아리아나 갈라를 통해서 오페라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김해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해 온 방식은 최초에는 창제작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 1억 9,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작비 문제가 아니라 2억 5,000만 원이 드는데 2억을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80%라는 거죠. 이 사업에 기금이 들어가는 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이 80%가 들어가는 사업을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하실 생각인가를 묻는 거죠.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이런 식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제작해야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하고 그 제작이 중요하다고 하면 제작을 하게 되겠죠.

**정병국 위원장 :** 손 대표님, 그게 아니고요. 그 예산을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김해에서 이 공연은 국회를 통해서 지정사업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 방식으로 또 하실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그 방식의 전개 과정은 위원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자체로 가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저희는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원래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 이렇게 되는 건 변칙인 겁니다. 지금 정갑영 위원께서 물어본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김해시의 문제고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공모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공모절차 없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또 밟을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국회에서 그런 경우는 피치 못해서 예산편성 과정 이후에 이 사업이 계획되었는데 “꼭 올해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년 차를 “쪽지예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단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로 또 할 거냐

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그래서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정병국 위원장 :**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쪽지예산은 김해문화재단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로 국회의 쪽지예산이 가서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국회에서 쪽지예산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김해시 문화예술과 주무관님이 나왔죠? 답변을 해 보세요. 김해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김찬우 김해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 제가 아는 선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전국체전까지는 국회지정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저희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보통 국회지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2번이거든요. 저는 지금 쪽 설명을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해문화재단이 창작오페라를, 그것도 장르가 오페라라고 하는 것을 지역에서 이만큼 성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급조되는 국회지정사업으로 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선정돼요. 이 정도면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해놓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재공연을 요구하는데 1억 9,00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장미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티켓 값을 받아야죠. 그래야 선순환이 되죠. 얼마를 받더라도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부행위가 되지 않나요? 나중에 문제도 됩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이고요. 첫해에는 감히 생각을 못하죠. 지역에서 오페라를 만든다? 그것도 창작오페라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국회지정사업으로 갈 수가 있었고 성공했어요. 오페라축제에도 초청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추후 공모의 방식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 쪽지예산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쪽지예산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든 확보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행위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예술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김해문화재단의 대표님은 김해시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경년 대표님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세요.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거죠.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예, 저희가 예술위원회에 신청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늘 예술위원회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여기에서 바로 잡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해시가 그렇게 쉽게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여기까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김해시는 내년까지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경상남도도 있고 인접 지역도 있는데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허왕후 같은 타이틀이면요. 가야 문화권이라면서요. 그러면 같이해야죠. 지금 2억의 예산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이나 인근의 재정 상황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신 분들이 거꾸로 위원회의 입장이 돼 보시면 위원회는 얼마나 수고입니까? 국회의 요청을 받아서 한 번도 아니고 내년까지 하고,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이 되면 위원회도 어렵고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3번을 받으시면 다른 곳보다 많이 받은 거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좋은 작품을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서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진각 위원 :** 가야사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를 근간으로 해서 만든 오페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사업으로 적절한 것이냐는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에서 한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가치도 있어야 하고 확장성도 있어야 하는데요. 허왕후라는 가야권에 국한된 콘텐츠를 갖고 전국적으로 오페라를 소개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사업보다는 사실 경남권에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가사업에 매달리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제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김해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창작오페라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다른 지역에도 소개하고 해외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럴 수가 없는 콘텐츠입니다.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등은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는 내용과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김진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한계가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지역의 차별화되고 고유한 콘텐츠가 얼마든지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발제를 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보편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어떻게 확보할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듣고 싶습니다.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위원님들 중에 가락국 김해김씨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락국 김씨 종친회의 전국적 수가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전설이 삼국유사에 있다 보니 역사로서의 수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지역의 소재로 끌어내서 조금 더 상상을 가미한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과, 아시다시피 하나의 왕국이 성립되고 거기에 있는 서사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개발을 한 것인데요.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역사를 넘어서서 보편성을 갖는 것도 매우 어렵고 저희도 당장 가락국 김씨 종친회의 많은 의견을 듣다보니 다른 지역까지 다 연계해서 수용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늘 그런 어려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허왕후라고 오페라로 되어 있지만 각 장르별 연계나 이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다양한 공연의 방식들을 저희 김해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결합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까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공연을 통해서 오페라를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갈라를 통한 것과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상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상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고 있습니다. 김해에 다양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중열 위원** : 계속 말씀하시는 게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언급을 하지는 않겠고요. 계속 지원이 없어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창작오페라가 이렇게 3~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지역적 한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명 오페라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오페라가 많이 있습니다. 나비부인도 그렇고 투란도트도 그렇고 이태리 사람이 일본, 중국의 스토리를 가지고 썼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적인 완성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사는 몰라도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아름답다.”, “계속 듣고 싶다.”라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창작오페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흐도 하나도 안 썼고요. 베토벤도 하나만 쓰고 끝냈어요. 그 이유가 그만큼 보편성을 가지고 종합예술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호소력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아무

리 투자를 많이 하셔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 오페라는 존재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손경년 대표님을 비롯해서 김해시에서 오신 분들, 우리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국회지정사업은 1번 내지는 2번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들인 가치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김해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페라가 주는 기본적인 가치, 다른 장르와 차별화된 것. 저는 소재가 어떻든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소재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세계로 못 나간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을 잘 살려서 더 나은, 차별화된 오페라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잘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지역이라고 해서 무료로 하면 그게 습성이 돼서 절대로 돈을 내고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것은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무료로 하면 사람이 적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재즈페스티벌을 할 때 처음에 2만 5,000원을 받았어요. 5만 명이 오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역이라고 해서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받아야 고정 고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료를 유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니깐요. 무료로 하면요.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이드나 지침들을 강력하게 백업해 주신다면 지역에서도 의지를 하면서 유료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김해문화재단에서 하셔야죠. 김해문화재단에서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 :**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유료화를 하고 있고 부분부분 나눔사업의 구조를 장르별로 구분해서 가고 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가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기부행위로 문제가 된다.”라고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티켓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이 티켓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스24’ 등에 티켓으로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데에 유료로 올랐을 공연과 올라오지 않은 공연의 가치에서 유료로 올랐을 공연은 내용을 몰라도 더 가치화합니다. 방식의 문제인데요. 금액을 정해서 티켓을 판매하시고 그 티켓을 나눔티

켓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티켓 판매는 하지만 그 티켓을 무료로 올 수 있게 300석, 500석 정도 연계해서 나눔으로 올리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 보고입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59쪽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 보고입니다. 예년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정리가 된 안을 보고드릴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조정(안)을 작업 중입니다. 주말에도 계속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기재정 이후 예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여건의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필요로 아젠다를 연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가 강조되고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기초예술 창작여건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학장르에서는 문학주간 사업이 증액 반영돼서 상반기에는 어린이·아동 중심의 문학주간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래하고 있던 문학주간 행사를 하는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전시공간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이 반영돼서 19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도 현장 업무보고회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대학로 노후시설 관련입니다. 대학로의 아르코예술극장이나 대학로예술극장이 다시 공연예술계의 허브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 리모델링 설계비로 현재 부처(안)에는 28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총 사업비가 486억이 드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무대기술지원 '무대기술119센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작 등 아르코예술극장을 기반으로 한 대학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4억 정도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기업 후원 매칭펀드 확대와 후원 플랫폼 구축으로 예술후원 활성화라는 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조건부 기부금 1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부분과 29억 정도가 증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예산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전입금 확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해 전입금 증액을 요구 중이나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답을 준 것은 없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는 수지 총괄표라고 해서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1,030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이 큼니다. 입장료 및 기타잡수입으로 39억 정도가 증액되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경륜·경정 사업이 다시 재개되면서 다시 그 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넘어가면 총사업비가 4,259억 원입니다. 현재의 버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41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10% 정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관광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들 3개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관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이 밑에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스타일육성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사업, 세 번째가 공예관광산업육성입니다. 한스타일육성지원 사업이나 공예관광산업육성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중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해외교류 사업은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문화과 산하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들의 공통적인 것은 한류와 관련한 사업이란 것인데요. 관광기금에서 하던 것을 통상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큰 범주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일단 이관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편성되는 사업들이 기관의 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편성 과정에서도 대응을 할 것이고 만약 이관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전입금에 관해서 계속 강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은 예술창작지원인데요. 장르별 위원님들께서.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르별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창작육성이 35억이었는데 43억 정도로 8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며 문예지발간지원이나 문학주간 향유사업이 확대되겠습니다.

시각예술창작육성은 25억 원 정도가 증액되고요. 시각예술 공간지원 확대 그리고 미술관의 수장고 대여 및 디지털화 예산입니다.

공연예술창작육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허왕후나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순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공연장기획장화지원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예술극장의 리모델링 설계비와 대학로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들이 증액되

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력육성이나 생활안정자금, 지역문화예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미술 사업이 일부 증액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기조가 건전재정 중심이라서 감액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쪽의 문화예술향유지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은 1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신나는예술여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방방곡곡은 20억 정도 감액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사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닌 보고사항이고요. 추후에 확정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할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첨언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 잠깐 질문을 드리면 지금 400억 원이 부처(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조정의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그럼요.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보고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구조 개선 추진현황을 지원총괄부 정준화 부장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원사업구조 개선 추진현황입니다. 회의자료가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정리된 안을 중간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보고의 형태고 최종적으로 이 내용은 9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 확정이 되게 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구조로 지난번 현장 업무보고에서도 1년에 10번 신청해서 10번 떨어지는데 1번 신청해서 1번만 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장르 기반 편제의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기존의 지원사업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측면도 있고 정부에서도 추가로 계속 사업들을 내려보내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 사업들에 계속해서 사업이 덧붙여지는 등 사업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많은 사업들을 다 모아보면 “국가단위 예술기구의 지원사업 총량에 부합하는가?”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지금까지 계속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고요. 단년도 지원사업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 사업들마다, 각 장르마다 단년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은 3년, 어떤 사업은 2년, 어떤 사업은 연속지원

등 공통된 규칙이 없이 각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를 정리하면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업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사업.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현재 사업구조는 너무 복잡한데 지원은 계속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가 없고 받은 지원금을 집행하는데도 제한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예술 현장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저희의 입장도 있는데요. 매년 단년도 베이스로 프로젝트 형태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성과 측적이 안 됩니다. 지원사업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를 견인하고 축적하여 선순환하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원사업 구조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사업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개편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단계별 창작지원과 분야별 집중육성인데요. 이 단계별 창작지원을 보시면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부분 지원사업을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한계를 탈피해서 창작주체 지원을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년간 지원은, 예를 들면 현재 공연분야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3년 동안 지원을 하지만 그 공연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설계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게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공간이 됐든 그 주체가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작 주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공연을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는 창작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2가지로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 플러스 다년도 창작주체 지원으로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위원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육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술과기술, 공공예술, 국제교류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창작 지원의 틀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각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형태로 새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향은 6월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지금은 2단계에 해당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 각 사업부서들, 총 8개의 사업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간보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확정해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바뀌는 내용에 대해 예술 현장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되는 의견으로 9월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내년도 사업의 공고가 나가는 일정입니다.

사업이 단순 직관적으로 이 사업이 뭔지를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기존에 지원신청을 했던 사업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신청영역은 모두 포용하되 기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이 된 것처럼 속된 말로 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를 계속 견인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 봤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44개의 사업이고요. 너무 많아서 일부 사업들은 저희 직원들도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형태로 재편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 플러스 다년도 창작주체 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번, 3번, 4번이 문학, 시각, 공연예술 분야의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문학 분야였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문학창작산실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6번,

7번, 8번에 해당하는 계 각 창작주체들을 3년 동안 다년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 전 단계로 1번 창작의 과정이 있고 5번에 확산을 위한 신나는예술여행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기술, 공공예술,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17개 사업으로 축소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아직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포함되지 않은 다윈과 어린이·청소년까지 합치면 적어도 20개 이내로 공모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작지원의 경우 현재 21개의 지원사업이 8개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구조로 단순화할 수가 있고요. 창작의 과정 그러니까 기존에 창작의 전 단계,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과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에 해당하는 창작산실 그리고 확산을 하는 신나는예술여행이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창작주체 지원은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이 영역들은 별도의 사업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해의 성과가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단체는 아니겠으나 성과가 우수한 사업들은 그다음 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건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창작의 과정에서 쇼케이스를 했는데 그중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2025년도 창작산실에 별도의 심의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내용이 현재 기준의 지원사업이고 왼쪽에 있는 내용이 개편되는 형태인데요. 예산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453억 정도가 창작지원의 지원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 단계의 “창작의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지원사업들은 준비 트랙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그것을 작년에 “창작의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합쳤습니다. 합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각각 사업에 들어가 있고 거의 포장지만 씌운 형태였는데요. 이 사업을 정말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요. 기존 “창작의과정”은 창작자가 발표를 하기 전에 리서치 같이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창작의과정”은 창작자 외에도 기획자나 스태프 같이 다양한 예술 현장의 구성원들이 꼭 준비가 아니더라도 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오픈트랙 형태로 사업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각 장르별 창작산실, 이 브랜드를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산실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단년도 부분입니다. 창작주체 지원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우수한 역량을 보여줬던 단체들 또는 개인들,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형태인 것이고요. 지원방식은 크게 구간을 3가지로 나눠서 지원금 영역별로 3개로 구분하되 지원이 많은 구간일수록 자부담을 많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의 요구는 대신에 그 자부담에 기업후원금 같이 가능한 많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인정해서 단체들이 꼭 공적 지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표가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이나 영국의 NPO의 단년도 지원의 방식은, 예를 들어서 3년을 지원하면 3년에 1번씩만 뽑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떨어지면 향후 2년간 지원신청을 못하고 대기할 해야 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매년 뽑으려고 하면 현재의 예산이 앞으로 2년 동안 3분의 1씩 늘어나야 하는 구조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예산을 3분의 1로 나눠서, 쉽게 말하면 매년 선정하는 규모를 줄이되 매년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3년간 선정되는 창작주체가 매년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심의제도는 아까 점심 때 말씀을 나누신 걸로 들었는데요. 계속 심의제도운영개선TF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사무처 내부적으로는 부정수급과 미정산사업 때문에 매우 많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개편하는 와중에 아예 지원신청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하여 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에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가 안 된다.”, “평가자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보고서에서 저희의 평가방식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이렇게 모니터링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단계부터 안내하고 새로심의 위원후보단을 활용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요. 현장 참여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년도 창작주체의 경우 선정된 단체가 요구하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KPI로 설정해서 그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사업마다 창피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각 지원사업들의 평가체계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통일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 간 행정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선정단계와 교부단계의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정해진 기간 내에 정산을 마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평가 형태로 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감점이 되는 방식으로 다음 해 심의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현장모니터링은 현재의 방식을 예술단체들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데 가서 뭘 지적한다기보다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아까 다음 단계의 견인을 말씀드렸는데 우수한 성과들을 발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열개이고 6월에 조금 더 보완해서 6월부터 8월까지의 예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지원총괄부에서 보고한 대로 지원사업 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의 전반적인 조직개편도 함께 아울러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구조조정 하는 것은 기획조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추후 사무처장은 지원총괄부의 심의제도개선과 통틀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중심으로 부서장들이 움직이다 보니 칸막이가 너무 높고 개별적으로 분절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부장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게 하면 칸막이가 없어지고요. 성과 시스템도 바꿔야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협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만든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정준화 부장이 보고한 지원사업구조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중열 위원 :** 창작프로젝트별 지원에서 창작주체 지원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주체 지원을 하게 되면 예술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프로젝트별 지원에 비해서 창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모하고 선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모에 나오는 작품들이 완성도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체계를 만드실 때 사후 모니터링 등 보완책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좋은 의견이 추후라도 있으시면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구조개편과 맞물려서 굉장히 커다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르 구분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개의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겠다는 게 가장 큰 것인데요. 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하는 건 맞기는 해요. 맞는데 그런 가운데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진행되는 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지원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개선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원래는 비전 전략이 설정되면 그것에 따라 사업구조가 개편되는 게 맞는데요. 현재는 2가지 방향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불편함, 복잡한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조직개편과 같이 연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사업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2가지가 지향점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년간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문학이면 문학, 공연예술이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지원사업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개편하면 좋겠다는 논리적인 틀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역도 광역이나 기초문화재단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한다는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학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현재 문학지방생들이 요구하는 “위원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돈을 받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문학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나 광역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목표설정이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실현을 할 것인가? 전략 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말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결된 게 하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하니깐 뭘 하나 만들어 놓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주어진 틀 속에서만 해서 성과를 잘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성과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챙기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인들에게 우리가 조직도 효율화시키고,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고 사업구조도 그렇게 개편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분절이 되면 분절이 된 범주에 들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데 통 털어놓으면 그것은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팀을 이끄는 사람들의 역량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보고를 하고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무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워크숍을 해서라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인력구조도 전부 다 개편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모두 보내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나중에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정갑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경영전략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에 줌으로 회의를 했고요. 개요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저희는 2개의 큰 덩어리인데 하나는 예산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기탄없이 위원들하고 직원들 사이에 공유된 의견이라는 것은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술위의 자율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우리 8기 위원회가 특별한 생각이나 안이 있어도 결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묻혀 버린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창의력이 뛰어난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전략해 버린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나갈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한 예술정책에 대한 방향을 잘 안 보여요. 그렇다면 위원회라도 위원회가 담당할 영역에서 정책방향이나 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틀에 짜여 있는 예산 안에서 얼마를 조정하고 빼고 넣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새로 출범한 8기 위원회는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혁신부의 50주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백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매 기수마다 미래조망을 하는 관례라고 할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전서의 성격으로 그냥 좋은 얘기를 늘어놓는 것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평가 문제를 대단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유를 찾아보며 성찰하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자체진단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존에 나왔던 대로 좋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화려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심포지엄을 또 할 텐데요. 그것도 일종의 관례죠. 심포지엄을 돈을 들여서

했지만 크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참여했던 인력들 외에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위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심포지엄을 해 왔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발제자, 주제, 토론자 등을 다 정리하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을 참여시켜 보자.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퇴직자를 참여시키자. 라고 좋은 의견을 주었고 그런 의미에서 심포지엄이든 백서든 퇴직자를 포함한 현재 직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자.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결론이자 논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정갑영 위원님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우리가 큰 줄기의 기조로 가야 할 텐데요.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5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하자고 했던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심의제도 개선이라든지 부서 조정 그리고 지원제도 개선 등이 같이 맞물려서 크게 보고 틀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 5월 8일에 저희 위원님들 3인, 외부위원 3인, 사무처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의까지는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첫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2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에 열릴 예술나무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 앞으로의 기부문화, 문화예술 쪽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행사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술나무페스티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일종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단발성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게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성격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의 사무처장이 이번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는데요.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이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령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을 통해서 그동안 육성된 아티스트들을 행사 때 소개한다거나 하는 방식들 그리고 다른 후원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하나의 예술마당으로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8,000명을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이냐? 모객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논의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를 누구를 타깃으로 하느냐? 타깃팅에 대한 문제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MZ세대가 될지 아니면 가족 단위의 행사가 될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술후원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

에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다음 회의 때 이것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예술후원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목표를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르코에서 2021년과 2022년에 연구용역을 하나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요약해서 다음 소위원회 회의 때 이것을 토대로 논의해서 중장기목표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음 예술가의집 재개관 행사에 시간을 딱 맞춰서 가야 하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예술인력양성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TF와 소위원회 보고가 남았는데 꼭 보고해야 할 소위원회나 TF가 있습니까?

**장인주 위원 :** 간담회 때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 계셨던 홍성태 위원님과 정갑영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단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인데 추후 일정으로 5차 회의는 TF 안에서 진행하고 검증위원회 관련 내용은 TF 내부 위원 대상이 아니라 전체 위원회 대상으로 심의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하려는데 헤비치페스티벌에 가시는 일정 때문에 6월 2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11시에 심의제도개선 워크숍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몇 시까지 합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인주 위원 :** 3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소위원회, TF는요?

**홍성태 위원 :** 우리는 골프장 살리는 문제 때문에 경영진단을 해 달라고 했는데 1번은 유찰이 되고 결국은 1군데만 신청을 했는데요. 삼정회계법인입니다. 굉장히 큰 회계법인인데 그 중에서 골프장만 전담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 팀이 여기저기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많이 한 이력으로 우리 과업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좀 다르고요. 또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사항은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관련해서는 23일에 매칭데이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외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계속해 왔던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공간을 융합예술을 하기 위한 적합한 공연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음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융합예술 기술에 대한 융복합 프로젝트가 결국 시각예술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영역

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비단 창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처의 사업들과 연계도 필요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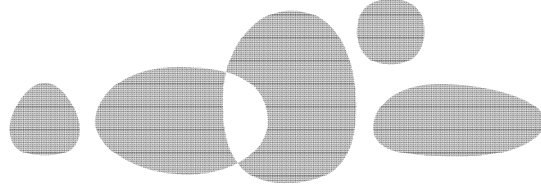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3년 6월 회의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2시에 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6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사전간담회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11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35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 종료)